

인사말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엠스쿨 신구약중간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구약중간사에는 역사적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배우고 신약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입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간인데요.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중간기라 부릅니다. 신약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중간기를 알아야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들어 신약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매번 꾸중을 듣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구약중간기에 생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 번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요? 좀 달라보이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생각해봐야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4:4)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오기까지 400년이 흐른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생각해 놓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유대인들 위주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중간기를 거쳐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시간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1. 혼혈민족이 된 북이스라엘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만해도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이후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그 중 북이스라엘은 200년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약 200년의 역사를 마치고 그들은 더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원전 B.C 8세기에 앗수르라는 나라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에 고대 근동지방의 나라들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앗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야만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국방과 외교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람-다메섹과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왕은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앗수르왕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수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군사를 지원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라하면 군사를 이끌고 침략하면 끝이라 생각하기 쉽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으면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모두 명분이 있었습니다. 앗수르왕도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준비했던 찰나에 남유다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반가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앗수르왕 티클랏 빌레셀 3세는 먼저 수리아를 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신 왕을 살해 합니다. 다메섹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앗수르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치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순수혈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혼혈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앗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다메섹 연합군을 격파하자 남유다 왕은 약속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과 값진 물건들을 다꺼내 앗수르 왕에게 바친것이지요. 앗수르왕 티클랏 빌레셀 3세는 이후에도 많은 지역을 정복함으로 실질적인 앗수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티클랏 빌레셀 3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 살라만에셀 5세가 앗수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앗수르의 정권이 바뀌는 순간이죠. 이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앗수르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앗수르에 계속 바치던 조공을 중단한 것이죠. 티클랏 빌레셀 3세의 죽음이 앗수르의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만에셀 5세가 왕위를 잘 이어받아 아버지가 남겨둔 과업을 잘 해결하려 했습니다. 살라만에셀 5세는 태도가 바뀐 호세아를 찾아가죠. 사마리아성을 포위하고 3년간 공성전을 펼칩니다. 결국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라만에셀 5세도 사마리아성을 점령한 그 해에 죽고 맙니다. 이어 다른 왕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이 했던 조공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도 사마리아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이 총독은 반란을 막기 위해 혼혈정책을 활발하게 펼쳤고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앗수르는 자신의 나라에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면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는 모두 혼혈족이 되도록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유지키서 세금도 잘 걷게 되었습니다. 이 때로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신약시대까지 800여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며 증오했던 것이죠. 심하게는 이방인 노예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개혁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이것도 미약하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가 마지막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싸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무시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싸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싸인에 민감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감정이 남아 있었죠.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은 10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중 한명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택했습니다. 왕의 결혼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좁혀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떤 교제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를 좁히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앗수르 제국의 흔적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부터 사이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10명의 문동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다시 돌아와 감사인사드린 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대낮에 물 길어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이야기들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2. 이후 150년간의 남유다 역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앗수르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잠시 나라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앗수르는 남유다의 역할을 다했다 판단하고 남유다를 칩니다. 수많은 마을과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획하고 46개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8만 5천명의 군인들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공성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상황에 대해 문헌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새장의 새와 같이' 가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금방 남유다는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앗수르는 다양한 전술로 공성전을 펼쳐 많은 나라를 얻었습니다. 보루로 돌격하거나 성벽과 성문을 부수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며, 굴을 팠습니다. 더군다나 심리전에 강했습니다. 앗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빨리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심리전을 펼칩니다. 언어의 천재 랍사계를 투입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공성전은 놀랍게도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성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명의 군대는 하루 아침에 죽고 맙니다.

왕하 19:35

이 밤에 예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5천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사건을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쥐들이 전염시킨 '페스트'라 기록하였습니다. "하룻밤에 수많은 쥐 떼가 나타나 앗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들을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하루 아침에 죽자 니느웨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앗수르의 산헤림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앗수르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은 당시 나라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를 거쳐 요시야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3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요시야 30년간의 통치 시기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개혁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나라의 건축사업에 몰두 할 수 있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재 수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들을 통해 남유다에 임한 징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B.C 609년에 애굽의 왕 느고가 앗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 새로운 강세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막고,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고자 북쪽 원정을 떠납니다. 이때 애굽의 원정을 막기 위해 유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므깃도에 요시아 왕이 출정했다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는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쳤고 결국 B.C 605년에 애굽은 완전히 폐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골라 바벨론으로 보내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친구입니다.

3.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남유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지도 계층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의 느고와 맞서 싸웁니다. 이 전투에서는 누가 승리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은 이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 남유다 여호야김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애굽에 원조를 구합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강화조약을 맺었었는데 위반한 것 같죠. 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아람, 모암, 암몬 군대를 남유다에 보내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애굽은 큰 피해를 입어 원조를 보낼 힘이 없었습니다. 어리석게 애굽에 원조를 요청하던 남유다 여호와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부대를 정비하여 직접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여호야긴과 왕후, 왕자, 신복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용사들,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포함한 1만명이 끌려 갑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김의 삼촌인 맷다니야를 바벨론식 이름 시드기야로 바꾸었는데요. 시드기야를 남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나라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자신들의 왕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시드기야 왕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조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죠. 시드기야 왕도 애굽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던 에돔, 모암, 암몬, 페니키아 연합에 남유다도 합세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나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하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의 물건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믿었던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은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약탈을 대비하여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의 군인들과 18개월동안 대치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안으로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예루살렘 성안의 삶은 점점 피폐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조약을 어긴 애굽을 쳐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어 B.C 587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시드기야는 비상통로를 통해 도망가려

했으나 한 사람의 밀고로 잡힙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이는 앞에서 두 아들은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 두 눈이 뽑히는 것은 서약을 파기한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어두운 감옥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을 모두다 불살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죠. 바벨론 군인들에게는 약탈이 허용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은 죽거나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수 인원만 남기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설화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상상해보세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시리아의 험한 산과 황량한 평원,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긴 계곡을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 군인들은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어느날은 포로의 행렬에 느부갓네살이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모두 등에 짐을 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짐을 지지 않은 이들은 바로 유대의 왕자들이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거룩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조각조각 자른 후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모래를 넣어 유대 왕자들에게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남유다 전체 도시들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마을 대부분이 텅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성전도 불타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새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 애굽으로 도망친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지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가 아닌 경기도 할 때 도의 개념이 될듯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임명한 첫 총독은 그달리야였습니다. 그달리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서기관 사반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달리야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지 않고 미스바에서 총독의 일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달리야가 총독일을 한 2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달리야를 죽였던 사람은 그의 신하 이스마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그달리야가 총독이 되자 충성을 맹세하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달리야의 보좌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맹세가 거짓일것이라 말했음에도 그달리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마엘은 그달리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수비대와 죄없는 구경꾼까지 살해하고 다시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보좌관 요하난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자신들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보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10일이 있은 후 예레미야는 유대백성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니 유대 땅에 남아 살아달라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애굽으로 방향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두려웠는지 예레미야와의 약속을 깨고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예레미야도 데리고 가죠. 이 때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따라갔습니다.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12년 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끌려간지 3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부족함 없이 쓸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도 비교적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고 자치 조직도 만들며, 이주의 자유도 누렸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들은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벨론까지 무사히 전달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여전히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포로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포로생활 초기에는 슬픔이 더욱 극심했죠. 그럴기에 백성들을 향한 에스겔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당을 짓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문서화 했고, 성전에서 가져온 두루마리들을 필사하며, 여기에 이론적인 설명까지 넣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인식이 일어나고 회당에서 율법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 일부는 상인이 되었는데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절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출애굽시대처럼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대가였던 것이죠. 300년동안 애굽땅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 헬라 제국 시대에 성경을 정리한 70인역이 만들고 난 후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유대로 돌아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헬레제국이 70인역을 존중해 주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었다고 합니다.

5. 바벨론의 70년 역사

근동의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은 70년만의 짧은 기간동안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군사적으로 탁월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뒤 왕위를 계승받은 왕들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마르둑은 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매부 네리글리살에 의해 살해됩니다. 네리글리살이 통치하다가 죽고난 후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라바시 마르둑도 몇 개월 있다가 나보니두스와 신하들의 이해 암상당합니다. 그리고 왕권은 느부갓네살 가문에서 나보니두스 가문으로 옮겨집니다.

아람 귀족의 아들인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루둑을 섬기던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달신을 섬기면서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고 지지 기반을 잃게 됩니다. 나보니두스는 심지어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자신은 종교 생활을 위해 10년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테마(Tema)라는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바벨론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요, ‘아키투’라 불리는 새해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10년동안 사막에 가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오던 새해잔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마르둑 제사장들이 나보니두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는 일반 백성까지 나보니두스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으로 돌아와 새해 잔치를 베풀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키루스2세 고레스가 오피스(Opis)라는 지역에서 바벨론 군인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진격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성문을 닫고 방어를 해야겠죠. 그런데 마르둑 제사장들과 바벨론 백성들은 오히려 성문을 열고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백성이 얼마나 새해잔치를 중요시 여겼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전쟁하러 나가는 시기와 새해잔치가 겹치면 꼭 아들을 참석 시켰습니다.

6. 70년 만에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

이때 바벨론은 유대에서 데려온 포로들을 다른 나라 포로들과 구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불려진 이름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일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다시 귀환할 때까지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이들의 조언을 따름으로 다른 민족과 달리 월등한 민족이 되어 다니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헬리시대 때 70인역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학자들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지식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숙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레미야 29:11)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왕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는 귀환 명령을 내리고 페르시아의 나랏돈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해줍니다. 키루스 2세의 실린더(대영박물관)를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 끌려 갔듯이 페르시아로부터 3차에 걸쳐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에 의해 42,360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유대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했으며 ‘예후딤’이라 불리는 유대인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일곱달이 지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사람 중 약 1,500여명이 동행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한지 7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즉시 율법을 읽고 해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해 나갔습니다.

3차 귀환 때는 페르시아 왕에게 12년간의 휴가를 받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따르는 소수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린 후 1년 뒤에 선조 느부갓네살이 약탈했던 성전 물품들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의 회복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7.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나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 귀환하게 되지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는 150년 전 바벨론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특히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나랏돈으로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제사로 사용할 제물을 살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한, 그리고 유대 땅에서 판사를 두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의 생명을 다를 수 있는 권한 등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후한 특권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당을 통해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드사스다가 그의 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서 잘 드러나게 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밤에 몰래 성을 탐색합니다. 느헤미야의 의도가 반대파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전에도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건축을 지으려 할 때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추진력 있게 성벽건축을 진행하지만 반대파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대가 쇠약했을 때 사마리아가 큰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는 유대의 회복을 원치 않았고 이를 방해했던 것이죠. 특히 사마리아의 총독이 된 산발랏의 방해가 상당했습니다. 산발랏은 암몬의 총독 도비야의 도움을 받아 느헤미야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 했고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장하여 일을 하게 했고, 500보마다 나팔수를 두어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공사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꾀임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공사를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공사가 마친후 아드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총독으로 임명하여 1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왕을 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를 떠나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느헤미야는 걱정할 수 밖에 없었죠. 이를 본 페르시아왕은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던 제사장 엘리아심의 무관심 속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꾸민 방을 성전 뜰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두려워하던 도비야는 사마리아로 도망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공사를 끝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잘 수행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에게 바칠 세금은 신경쓰면서,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여인과 결혼하기도하고, 마술, 간음, 거짓맹세,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압하였고, 하나님의 십일조와 제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8.마무리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악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는 말씀에 “네 주님! 주님께서는 한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